

전주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추가 지원

등유·LPG 사용 가구 5만원 추가 지원

전주시는 고유가 위기 극복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시의 추가 지원은 지난 1월 등유·LPG 사용가구에 대한 확대 지원 결정에 이어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시

행되는 것이다. 이에 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비 사업 '에너지바우처 사업' 확대 지원금 기준 14만7000원에서 총 19만7000원으로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대상은 기존과 같이 에너지바우처 수급 세대 중 등유 또는 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가구에 한해서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사용 이력에서 최근 구입 연료가 등유·LPG이거나 전체 사용액 50% 이상을 등유·LPG에 사용한 세대이다. 또 지난 2024년도 사용 이력에서 마지막 구입 연료가 등유·LPG였거나, 현재 주 난방 연료로 등유·LPG를 사용하는 세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방식은 신규 신청의 경우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고, 기존 발급

자의 경우 선불카드에 추가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폐기한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에 따라 카드 배부기간은 오는 10월 23일까지, 사용기간은 10월 25일까지로 연장되며 이후에는 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월할 수 없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취·창업데이 운영

취·창업 맞춤형 1:1 상담 제공

전주시 청년이음전주에서는 매일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취·창업데이'가 운영된다. '취·창업데이'는 취업과 창업 과정에서 다양한 고민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상담 지원 날이다. 운영은 전문 상담사와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하루 동안 정보 제공과 1:1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취업 분야는 전주시 일자리센터와 원광대학교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가 협력 운영한다. 기초 취업 상담부터 진로 설정, 취업 준비 컨설팅 등 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상담을 제공한다. 또 청년이음전주 AI면접실 활용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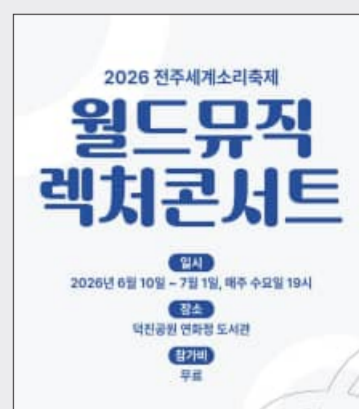
전주시 청년이음전주에서는 매일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취·창업데이'가 운영된다. <사진=전주시>

특히 시는 상담 이후 청년정책 및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지역 내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정책 관련 정보는 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 '청정지대'(youth.jeonju.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판소리·세계 음악의 흐름을 만나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월드뮤직 렉처콘서트' 개최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오는 10월부터 7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전주 연화정도서관에서 '월드뮤직 렉처콘서트'를 개최한다. '월드뮤직 렉처콘서트'는 소리축제 양대 축인 '판소리'와 '월드뮤직'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렉처콘서트는 불업(Boom-up) 프로그램으로서 세계 음악을 매개로 한 소리축제 정체성과 전문성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자리다. 프로그램은 장르별 전문가 해설과 시청각 자료 감상이 이뤄지는 '시청각 해설 중심 렉처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음악과 영상,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해 장르 흐름과 시대적 배경, 예술가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첫 시간 6월 10일에는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가 저서 '판소리 길라잡이' 중심으로 판소리 역사와



미학, 주요 특징을 쉽고 깊이 있게 풀어내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어 17일에는 신경아 음악여행 작가가 저서 '세상의 끝에서 만난 음악'을 주제로 세계 곳곳에서 직접 마주한 음악과 문화 이야기를 들려준다. 24일에는 제42대 문화관광부 장관과 소리축제 조직위원장을 역임한 김명곤 전 장관이 영화 '서편제'와 함께 판소리와 소리의 삶을 이야기한다. 7월 1일 황윤기 월드뮤직 평론가의 저서 '포르투갈의 노래 파두'를 중심으로 포르투갈 대표 성악 장르인 '파두(Fado)'가 소개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청년공동체 네트워킹 데이' 진행

청년 관계망형성 공동체문화지원 운영에 참여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친밀감을 형성하고 관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더불어 행사에서 △서예 공동체의 작품 전시와 체험 활동 △바둑 공동체의 미니 대회 △러닝 공동체의 플로깅과 야외 러닝 활동 △소풍 공동체의 콘텐츠 제작 활동 △AI 공동체의 AI 활용 콘텐츠 기획 활동 등이 운영됐다. 이번 네트워킹 데이는 공동체 운영 이후 처음으로 모든 공동체 참여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행사는 팀별 소통 프로그램과 보드 게임 등을 활용한 네트워킹 형태로

전주시 청년부부 결혼 비용 지원 신청 접수

청년부부 결혼준비 부담 해소

전주시가 인구·청년정책 일환으로 청년 결혼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달에 따라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

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18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한다. 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주시에 계속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이후에는 부부 모두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지원 규모는 총 30쌍으로, 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8일까지 전주시 통합지원신

청사이트를 통해 상반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12월 중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부부에게는 결혼식을 위한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을 실제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참여 수요와 만족도,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외 시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에비·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중소기업 '바이전주' 우수상품 신규 인증

모던메탈 유한회사(주)비전실업업체 3개 제품 신규 선정 상품 홍보·판로 개척 등 지원

전주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우수 제품들이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새롭게 인증을 받았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바이전주 우수상품' 제품은 △모던메탈 유한회사 '디자인형울타리' △비전실업 '자외선차단 마스크와 자외선차단 팔토시' 등이다.

(주)비전실업 자외선차단 마스크와 자외선차단 팔토시는 무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이다. 원단 개발과 품질관리 노력이 우수하고 특히 위생적인 생산시설과 착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제품 연구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주)비전실업은 녹색기존인증과 녹색제품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2건을 확보하는 등 제품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을 높여왔다.

모던메탈 유한회사 디자인형울타리는 높은 시인성과 시공성을 갖춘 제품이다. 제품은 공공시설물 등 다양한 현장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 업체는 혁신 제품과 성능인증, 기술개발제품, 시범 구매 제품 인증 등을 확보하며 제품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다. 또 꾸준한 제품 개발 노력과 안정적인 생산·가공 역량이 높게 평가됐으며, 품질관리 체계 구축과 생산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향후 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바이전주 우수상품 인증업체에 인증서와 인증마크, 인증현판을 교부하고, 우수 상품 홍보와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소품물 제작,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3.5% 지원 등 기존 바이전주 인증업체 지원사업도 연계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울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AI 기반 스마트 챗봇 상담 제공

전주덕진소방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적용한 '생성형 AI 기반 스마트 톡톡(챗봇)'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스마트 톡톡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시간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민원 상담을 제공하는 지능형 민원 응대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 반복적인 전화 상담을 줄여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기존에는 평일 근무시간에만 상담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평일 업무 외 시간과 휴일에도 AI가 먼저 1차 답변을 제공하고, 이후 근무시간에 담당자가 추가 답변과 보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됐다. 기존 시나리오형 답변 150개를 포함해 모든 소방법령·화재안전기준, 관련 업무지침, 내부 공문, 홈페이지 게시사항, 조적도, 민원서식 등 방대한 자료를 지식베이스로 구축돼 있다. AI는 답변을 생성하기 전에 외부 지식베이스에서 관련 근거를 검색·참조하는 RAG(검색증강생성) 방식을 적

전북소방 여름철 폭염 도민 안전망 구축 나서

'의용소방대 폭염 안전지킴이' 추진

전북지역 온열질환 구급출동이 최근 5년 새 3.6배 증가한 가운데 전북소방본부가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 보호 위한 의용소방대 중심의 현장 예방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도내 15개 의용소방대연합회 362개대 8220명이 참여하는 '의용소방대 폭염 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이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농어촌 어르신, 야외작업자,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지역 온열질환 구급출동은 2021년



96건에서 2025년 347건으로 증가했다. 폭염이 장기화되고 한낮 농작업과 야외활동 위험이 커지면서, 재난 발생 이후 대응보다 마을 단위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읍별 폭염 안전지킴이는 찾아가는 폭염예방 교육, 취약시간 예방순찰, 취약계층 돌봄활동, 무더위쉼터 이송지원으로 운영된다. 먼저 마을담당 의용소방대원이 2인 1

조로 도내 농어촌 마을회관 5460개소를 찾아 폭염 시 농사일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그늘과 바람이 있는 곳에서 휴식하기 등 기본수칙을 안내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논·밭, 야외작업 등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예방순찰을 실시한다. 예방순찰에는 다기능순찰차 7대, 화재진화차 12대, 펌프차 3대 등 차량 22대를 활용해 계도방송을 송출하고, 야외작업자에게 얼음물과 폭염예방 전단지 배부할 계획이다. 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생활안전 교육을 병행하고, 순찰 중 이송지원이 필요한 폭염취약자를 발견하면 가까운 무더위쉼터로 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열질환이 의심돼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119구급차로 연계한다. /정소민 기자

정부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나선다

**면세경유 기준
기준 138원/ℓ→176원/ℓ
보조금 지급한도 상향**

정부가 고유가 지속에 따른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농기계 △시설원예농가 △어업인 △임업종사자 등 유가 취약계층 대상 지원이 상향 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통해 생산비 증가에 취약한 농·어민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시 초과분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면세경유138.4원/ℓ 등)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 지급 중(3~9월분)에 있었지만 최근 고유가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인상분에 대해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 었다. 이에 정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성수기를 앞두고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해(면세경유138.4원/ℓ → 176.2원/ℓ, +37.8원/ℓ 등) 유가 취약계층인 농·어민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지난달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

소관부처	지원 유종	기준가격 (원/ℓ, 원/kg)	지원한도(원/ℓ, 원/kg)				
			현행 (기준가격 대비 12.9%)	상향 (기준가격 대비 16.4%)	인상액		
농식품부	원예시설 난방기용	농기계용 (트랙터경유기용비엔)	경 유	1,070	138.4	176.2	+37.8
		경 유	1,112	143.9	183.2	+39.3	
		중 유	1,116	144.4	183.8	+39.4	
		LPG	1,197	154.8	197.1	+42.3	
		부생연료유 1호	1,015	131.3	167.2	+35.9	
부생연료유 2호	1,055	136.5	173.8	+37.3			
해수부	어업용	경 유	1,070	138.4	176.2	+37.8	
산림청	임업기계용 (중력상압기 등용)	경 유	1,070	138.4	176.2	+37.8	

된 지원한도를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스쿨팜' 도농교류사업 자리매김

효초초등학교 학생 19명 농업·농촌 소중함 되새겨
5월 1일부터 수확철인 10월까지 보내기·벼수확하기·무·배추 등 식재료 체험형으로 학생 고사리 손 사랑을 받고 자리매김 수확된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스쿨팜 관련 채소들의 관찰과 교류의 시간을 갖으며 학업 속에서도 짬짬이 시간을 내어 들여다 보며 식물들의 동정을 살핀다. 이날 전북농협 김성훈 본부장은 전주효초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벼를 심고 그동안 자라난 텃밭 채소들을 수확하며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몸소 경험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스쿨팜 행사를 마친 후 학생들과 함께 전분식혜, 쌀과자 등 다과를 즐기며 도심 속 농촌 체험이 마무리됐다. /김영태 기자

경진원 '우체국 프로모션 지원사업' 추가모집

**지역 내 유망 기업 발굴
11일까지 접수**

전북도와 (재)전북경제통상진흥원(윤여봉 원장)은 '2026년 우체국 프로모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경진원 추가 모집은 우수한 품질을 갖추고도 판로 확보와 소비자 인지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유망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형 온라인 유통채널인 우체국 쇼핑몰과의 협업을 통한 온라인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북도 소재 사회적 경제기업 대상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들에겐 7월부터 준비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맞춤형 판촉 혜택이 제공된다. 더불어 우체국쇼핑몰 내에 전용 브랜드관이 개설돼 상시 홍보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된다. /김영태 기자

아울러 명절 및 주요 시즌 기간 할인쿠폰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일 오후 4시까지이다.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www.jbba.kr)을 통한 상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국산 밀 신규 우수 계통' 현장 평가

**면용·빵용 특화 후보군
생육 특성 및 수량성 비교**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8일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 시험 재배지에서 신규 육성 밀 우수 계통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최근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수입 밀 기반의 국내 식량품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환경에 적합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하는 우수 신종종 개발로 국산 밀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국립식량과학원과 광주농업기술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남농업기술원 밀 육종 및 재배 담당자를 비롯해 한국우리밀농협, 구례우리밀 등 생산자단체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평가 대상은 농촌진흥청 맥류작물과에서 육성해 지역별 생육 적응성(지역적응시험)을 평가 중인 계통으로, 면용('전주435호', '전주436호')과 빵용('전주437호')으로 특화된 우수 후보군이다. 참석자들은 신규 계통의 생육 특성



과 수량성을 기존 품종과 비교, 평가하며 지역 맞춤형 품종으로서의 가능성을 점검했다.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 김사리 소장은 "광주광역시와 전남은 국산 밀 주요 재배 지역인 만큼 지역 기후에 맞는 우수한 신규 품종 선별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이모작 작부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농가 소득 증대와 국산 밀 자급률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기초식량작물부 김기영

부장은 "국산 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은 지역별 재배 안정성이 뛰어난 품종을 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것이다"라며 말했다. 또 "지역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역 맞춤형 신종종을 개발하는 한편,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연계한 재종 단지를 조성해 우수한 신종종 종자가 조기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농협자산관리회사 전북지사 우리마을 희망동행 실시

농협자산관리회사 전북지사(지사장 이용우)는 지난달 28일 '우리마을 희망동행'행사를 실시했다. 행사는 농업·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 농축협과 협업체 농민 실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구이농협(조합장 최만열),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지부장 원천연), 농협자산관리회사 전북지사(지사장 이용우), 농가주부모임 등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관내 마을에 사랑의 건강반찬을 지원했다. 농협자산관리회사 이용우 전북지사장은 "어려운 농촌마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촌마을에 활력 부여를 위해 공헌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디자인센터 '디자인 실무 아카데미' 운영

기업 및 디자이너 역량 강화 적응성을 강화했다. 교육에서는 △SNS 콘텐츠 기획 및 비주얼 제작(이미지·영상 실무) △브랜드 톤앤매너 기획 및 시안 완성 실습 △시안 완성도 점검과 저작권 검수 체크 중심으로 운영됐다. 유종길 센터장은 "생성형 AI 활용이 보편화될수록 콘텐츠 디자인의 양보다 브랜드 일관성, 기획력, 검수역량이 경쟁력이 되는 만큼, 현장에서 바로 쓰이는 실무형 교육을 지속·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국민연금공단 공동 사회공헌활동

도역 환경정화활동
국민연금공단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과 함께 지난달 29일 국민연금실호국원을 방문해 1사 1도역 가꾸기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국민복지를 찾아 그 위훈을 기리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국가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전북은행과 국민연금공단 직원 20명은 현충탑을 참배하고 양 기관이 국민연금실호국원과 결연을 맺고 있는 도역 등에 태극기 꽃기와 환경정화활동을 가졌다. 이의 조국을 위해 젊음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안치돼 있는 충령당에서 국

국민연금, 1분기 운용수익률 4%대 기록

**기금적립금 1526조원
전년 말 대비 68조원 증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기금은 운용분은 올해 1분기(3월 말) 기준 기금적립금 1500조원을 넘어서며 4%대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올해 1분기(3월 말)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526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68조원 증가했다. 수익률은 4.42%(금액가중수익률)으로 집계됐다. 수익률 4.42% 결과는 해외주요 연기금(노르웨이 GPF 1.9%, 네덜란드 ABP 0.5% (현재 수익률 자료 인용))과 비교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양호한 성과이다. 자산군별로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 21.67%, 해외주식 -0.11%, 국내채

권 -2.03%, 해외채권 4.98%, 대체투자 5.27%로 각각 나타났다. 미·이란 전쟁 발발(2.28)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로 국내주식은 반도체 중심 상승세에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두 자릿수 상승세를 유지하며 전체 수익률을 견인했다. 반면 해외주식은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수익률이 하락했다. 국내 및 해외채권은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국내채권은 채권 평가가치 하락으로 수익률이 하락했고,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양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체투자자산 수익률은 주로 이차·배당수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이 반영된 결과이며, 공정가치 평가는 이번 성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성주 이사장은 "1분기 운용수익률



은 중동 전쟁 여파로 2월 말 10.26% 대비 다소 하락했으나 현재는 회복해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노후를 책임지는 장기투자자로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운용철학과 철저한 위험관리로 수익률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사전투표 첫날... 천호성·이남호 “소중한 한 표” 호소

**천호성 “전북 교육 재건”
이남호 “검증된 일꾼”...
유권자 권리 행사 독려**

전북교육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천호성, 이남호 후보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천호성 후보는 이날 오전 전주시 효자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다. 천 후보는 “차기 교육감에게는 무너진 전북 교육을 바로 세워야 될 중차대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후보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천 후보는 도민들을 향해 “실력



천호성 후보



이남호 후보

모든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더 나은 후보를 찾아 투표하는 것

이 전북 교육의 미래를 앞으로 나가게 할 것”이라며 소중한 권리 행사를 당부했다.

이남호 후보는 이날 오후 익산 북일초등학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및 지지자들과 함께 투표를 마쳤다. 이 후보는 교수로 7년간 재직하며 자녀들의 유년기를 보낸 익산을 ‘제2의 고향’으로 꼽으며 이곳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전북교육에는 말만 앞세우는 가짜가 아니라, 큰일을 직접 해본 검증된 진짜 일꾼이 필요하다”며 “도덕성과 실력이 검증되고 재선기 걱정 없이 전북교육을 안정적으로 이끌 책임자를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 또한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가 전북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전북교육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성민 기자

익산보석박물관 ‘수정’ 기획전시 운영

5일부터 8월 30일까지
수정 원석 및 장신구 선봬

익산시는 보석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전시 ‘수정(水晶)이 필요해’를 운영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전시에서는 달성화석박물관과 지질박물관에서 대여한 세계 각국의 수정 원석을 비롯해 시계 등 생활·산업 물품, 현대 공예품과 장신구 등 80여 점의 전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대표 전시품으로는 백수정 원석을 절단이나 접합 없이 그대로 깎아 만든 ‘상배’가 소개된다. 수정으로 만든 보울과 꽃, 18K 금으로 제작된 줄기와 테두리, 아벤추린으로 꾸민 녹색 반침이 조화를 이루며 수정 특유의 맑

고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도 함께 운영된다. 서양에서 점술 도구로 사용했던 백수정 구슬을 직접 만져보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공간과 미래의 소망을 적어 보는 체험도 마련된다.

오는 20일부터는 전시와 연계해 매주 주말 개인·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 설명과 천연보석 수정팔찌 만들기 체험, 참여 작가들과 함께 하는 토크 프로그램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석박물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석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교조 전북지부 “체험학습 사고 형벌화 구조 바꿔야”

‘행사 책임 면제’ 한계 지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비판하며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행사처벌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민·행사상 책임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전북지부는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단서 조항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 교사가 여전히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단순한 ‘행사상 책임 면제’가 아니라, 사전에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다한 경우 ‘업무상과실처사상죄’ 자체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또한 교사 개인이 홀로 소송을 감당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소송 책임을 국가가 지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책이 누락된 점도 문제 삼았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장이 악성 민원을 자체 종결하더라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뒤따르는 게 현실”이라며 “교

육활동을 정서학대나 방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교사를 보호하는 일은 교육활동과 학생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교사들이 행사처벌과 악성 민원 불안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상과실처사상죄 적용 배제와 아동복지법 개정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부안예술회관, 6월 무료 영화 ‘살목지’ 상영

부안군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오는 18일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오후 3시와 오후 7시 30분, 하루 2회에 걸쳐 영화 ‘살목지’를 무료 상영한다.

영화 ‘살목지’는 기이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 저수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미스터리 공포 영화다. 살목지의 로드뷰 화면 속 촬영한 적 없는 정체불명의 형체가 포착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오늘 안에 반드시 재촬영을 끝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 PD ‘수인’(김혜윤)과 촬영팀을 살목지로 향하고, 촬영이 시작되자 행방이 묘연했던 선배 ‘교식’(김준한)이 등장한다. 이후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며 촬영팀은 점점 어둠



<사진=부안군>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

부안예술회관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시민들이 시원한 공포영화를 통해 색다른 문화 경험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정읍문화원, 조선왕조실록 이안 행사 개최

시민 수호자 100명 모집

정읍문화원이 오는 20일 내장산 일대에서 열리는 ‘2026 조선왕조실록 이안 기념행사’를 앞두고 옛 복장을 입고 전통 행렬에 동참할 시민 수호자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안의와 순흥록 등 정읍의 백성들이 조선왕조실록을 안전하게 내장산으로 옮긴 역사적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지역민들의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넓히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2일까지이며, 선착순 접수로 진행해 배정된 인원이 다 차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수호자로 뽑힌 시민들은 행사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행사장에 모여 옛 평민들의 웃인 민복을 입게 된다.

이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일주전에서

용궁로 이어지는 이안 행렬 체험에 참여한다.

이 행렬은 왕복 기준 약 80분 동안 이어진다.

전체 기념행사는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내장산 탐방안내소 앞 광장과 일주문에서 용궁에 이르는 구간에서 펼쳐진다.

실록 수호자 100명을 포함해 총 300여 명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본 행사에서는 식전 공연에 이어 이안 과정은 그대로 보여주는 연극과 행렬이 차례로 진행된다.

정읍문화원 관계자는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선조들의 수호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참가 신청이나 자세한 안내는 정읍문화원(063-532-0222)으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혼불문학관, 학생들과 ‘혼불’ 구술채록

9월 공연서 결과물 공개

혼불문학관이 추진하는 ‘혼불’ 구술채록 활동에 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최명희 작가와 노봉마을의 기억을 함께 기록한다.

이번 활동에 참여하는 남원고 1~2학년 15명은 ‘결지기’라는 이름으로 활동한다. ‘결지기’는 우리가 살아온 삶과 이야기의 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았다.

학생들은 지난달 21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총 10회에 걸쳐 구술 인터뷰와 영상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한다. 이들은 ‘혼불’과 지역 문학을 살펴보는 한편, 기존 구술 영상과 인터뷰 사례를 함께 공부하며 질문지 작성과 모의 인터뷰, 현장 기록 활동 등을 경험하게 된다.

나아가 영상 결과물을 편집·확장하는 과정에도 참여해 문학이 문화행사로 확장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진행할 구술 인터뷰 대상에는 최명희의 지인이자 드라마 ‘은실이’ 등의 대본을 집필하고 대중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한 이금림 작가를 비롯해, ‘혼불’의 배경지인 노봉마을 주민들이 포함돼 있어 기대를 모은다.

활동 기간 동안 학생들이 직접 촬영·제작한 영상은 오는 9월 열리는 ‘혼불, 기억의 연주’ 행사 현장에서 관객들에게 공개된다.

혼불문학관 관계자는 “학생들이 ‘혼불’과 지역 문학을 깊이 이해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문학과 기록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 문학을 가까이 접하고 그 소중한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 및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26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시각예술단체와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모집을 통해 미술품 대여 전시를 진행할 도내 시각예술단체 5개 단체와 미술품을 전시할 기관·기업 5개 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각예술단체 신청 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시각예술 민간단체이

며, 지난달 29일 신청이 마감됐다. 기관·기업 신청 자격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가진 작품 설치 및 전시가 가능한 도내 소재 공공·민간 기업(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오는 5월 오후 5시 59분까지 이메일(jbct7448@gmail.com) 또는 공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jbct.or.kr)을 참고하거나 창작지원팀(063-230-744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여름철 가정용 전기사용 행동요령

에너지 절약 함께 해요!

필수 사항

-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기**
-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두기**
-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를 설치하기**
-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동절기 18℃, 하절기 26℃
- 사용하지 않는 조명 끄기**
- 전력사용 많은 시간대 전기사용 자제하기**
오전 10~11시, 오후 2~5시

‘고창 명품수박’ 롯데백화점서 첫 선

서울 본점 비롯 수도권 7개 지점서 홍보 및 판매 시작

전북 고창군이 ‘고창수박’의 지리적 표시 등록 2주년을 맞아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을 비롯한 수도권 7개 지점에서 ‘지리적표시 고창 명품수박’ 특별 홍보 및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롯데백화점 본점(서울 중구 남대문로81)에서 지리적표시 고창명품수박 홍보판촉전이 열렸다.

행사에는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을 비롯해 김연호 고창군수박연합회장, 고창군수박연합회원, 롯데백화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리적표시 고창수박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를 적극 홍보했다.

또한, 무료 시식행사와 수박 카빙 전시, SNS 인중 이벤트 등 다양한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현장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백화점 입점은 ‘지리적표시 고창수박’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고창수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엄격



지난달 29일 서울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지리적표시 고창명품수박 홍보판촉전 <사진=고창군>

한 품질 기준을 통과한 프리미엄급 ‘고창 명품수박’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망에 선을 보이며 명품 농산물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고창 명품수박’은 하우스 재배 수박 가운데 무게 7~9kg, 비과과 당도선별 13브릭스 이상 기준을 충족한 최고급 수박이다. 고창군수박연합회원들 중 엄선된 농가에서 생산하며, 지리적표시 품질 기준에 따라 재배·선별된 프리미엄 수박만 출하된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은 “지리적표시 등록 2주년을 맞아 고

창수박 브랜드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롯데백화점 입점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소비자들이 고창 명품수박의 뛰어난 맛과 품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점 행사를 시작으로 고창군은 지리적표시 고창수박의 명품화 및 전국 유통 확대를 지속 추진해 대한민국 대표 프리미엄 수박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김제시>

김제 세정과, 세정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표창 수여

김제시 세정과는 지난 28일 ‘2026년 지방세 연찬회’에서 ‘전북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기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는 2025년 지방세정 운영 전반에 대해 도내 14개 시부와 군부를 구분해 2개 분야 14개 항목 등 지방세정 전반적인 운영 실적을 평가, 우수한 성과를 이룬 기관을 선정한다. 시는 작년 ‘대상’ 수상에 이어 올해도 지방 세정 최우수 행정 기관으로

평가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세수추계 정확도, 합리적인 지방세정 운영,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을 통한 연구과제 발굴, 감면 사후관리를 통한 세원 누락 방지, 취득세 사전 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고민과 함께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 및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구멍조끼 의무화 홍보 캠페인 전개

어선 집중안전 점검 실시

고창군청 해양수산과(과장 강윤희)가 지난달 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구시포항에서 ‘구멍조끼 의무화 관련 홍보 캠페인 및 2026 어선 집중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고창군청, 고창군수협, 고창군어업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안해경 등 관계자 약 30여명이 참여했다.

앞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24조 개정에 따라 올 7월1일부터 모든 어

선원의 구멍조끼 착용이 의무화됐다.

고창군은 관내 어선어업인들에게 구멍조끼 착용의 중요성과 법 개정에 따른 의무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구멍조끼 홍보 유인물과 구멍키트를 배포하고, 합동점검반과 함께 어선의 엔진 상태 및 배터리 상태, VPS작동 여부, 구멍조끼 및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등 어선안전점검을 진행했다.

강윤희 고창군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형 어선어업인들의 안전수칙 준수 문화가 정착돼 안전한 조업환경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동계조사료 품질검사 본격 추진

부안군은 고품질 조사료 생산 확대와 안정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2026년산 동계조사료 사일리지 품질 검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품질검사는 이달 한 달간 고창부안 축협 조사료유통센터에서 실시되며, 2026년산 동계조사료 사일리지 중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검사물량은 경영체별 전체 유통물량의 4%에 대해 계근을 실시하고, 2%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료 품질관리는 고급 축산물 생산과 축산 경쟁력 확보의 기초가 되는 만큼, 군은 시료 채취부터 분석·등급 판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관내 조사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조사료 품질검사는 고품질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및 국내산 조사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조사료 경영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축산농가에는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상생할 수 있는 조사료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미래산업 추진방향 논의

김제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김제시 피지컬 AI 접목 전략 수립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AI·로봇 기술을 지역 전략산업에 접목하기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이현서 김제시청 권한대행은 전북도, 전북대학교, 한국기계연구원, 전북TP, 광주TP, ㈜대동로보틱스, 페르소나 AI 등 관련 전문가 및 국·소·실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시 전략산업의 여건과 변화 방향, 피지컬 AI 접목 필요성, 단계별 추진전략, 향후 추진 계획 등이 보고됐다.

특히 김제가 감점을 가진 특장자·

의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조사료 경영체의 품질관리 의식을 높이고 축산농가에는 보다 우수한 조사료 공급 기반이 마련돼 고급 축산물 생산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조사료 품질검사는 고품질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및 국내산 조사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조사료 경영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축산농가에는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상생할 수 있는 조사료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부안군 ‘연고산업육성 사업’ 예비 선정

전북 유일 쾌거... 젓갈 기반 K-소스 산업 추진

부안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예비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화된 연고 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총 36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17개 시군구가 예비 선정됐다.

특히 전북도 내에서는 부안군이 유일하게 선정되며 부안 젓갈 산업의 혁신

가능성과 사업의 독창성을 높게 인정 받았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부안군의 사업명칭은 ‘부안 젓갈 기반 K-소스 산업 고도화 및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부안의 대표 연고산업인 젓갈을 현대적인 K-소스 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포부가 담겨있다. 이번 사업은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이끌며,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참여기관으로 함께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관내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신제품 개발 지원 △품질인증(HACCP 인증, 특허출원 등) △제조 공정 개선 △공통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온·오프라인 판로 확

대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제품 개발부터 생산, 마케팅, 유통에 이르는 전 주기적 맞춤형 지원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젓갈 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전북에서 유일하게 부안군이 선정된 것은 부안 젓갈 산업이 가진 잠재력과 K-소스로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라며 “이번 예비 선정을 시작으로 최종 선정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부안의 전통 젓갈이 글로벌 K-푸드의 주역이 되고, 나아가 지역 경제의 강력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지방소멸 소멸 대응 전략 논의

청년·미래산업 중심 투자 및 행정역량 집중

김제시는 지난달 29일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청년과 미래산업 중심의 지방소멸 대응 전략과 중점 투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시청 2층 상형실에서 이현서 김제시청 권한대행 주재로 인구정책위원, 외부전문가, 관계 공무원, 용역수행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역 여건 분석과 투자계획 추진 방향, 주요 전략사업 등에 대한 중간 검토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인구감소 추이와 산업·정주 여건, 주민 수요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정착, 미래산업 육성, 생활인구 확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 대응 방향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기반 확대와 체류형 생활인구 활성화, 주민 체감형 생활서비스 개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주환경 조성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투자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연계성,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연계 사업과의 시너지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향후 컨설팅 결과 등을 종합 반영

해 투자계획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청년 정착과 미래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정주인구 확대와 지속가능한 지역활력 기반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현서 김제시청 권한대행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제만의 특성과 감점을 살린 실효성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해 지역활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道 지방세 연찬회에서 ‘우수상’ 수상

이제인 주무관 발표 ‘법인지방소득세 개선 관심’

부안군청 재무과 이제인 주무관이 2026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 주관한 지방세 연찬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28일 ‘진안치유의숲’에서 열

린 이번 연찬회에서 이제인 주무관은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관심과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연찬회는 지방세의 제도개선과 신세원 발굴을 위한 행사로 이날 행사에서는 도내 시·군에서 제출한 14건의 연구과제 중 1차

서면 평가로 선정된 6건의 우수과제를 발표해 순위를 정했다.

재무과 관계자는 “재무과 직원들이 이번 지방세 연찬회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 업무 연찬으로 군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부안=온봉기 기자

부안군, 세계 금연의 날 기념 금연 주간 행사 운영

부안군은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기념해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일간, 생활 속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부안을 일대와 초등학교 현장에서 군민·학생이 참여하는 금연 주간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안고창지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먼저 지난달 27일에는 유동 인구가 밀집하는 부안 시외버스터미널과 부안상설시장 일대에서 ‘금연구역 인식 확산 캠페인’을 전개해 공공장소 금연구역 준수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하며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에 주력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아침 등교시간에는 부안동초등학교에서 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NO담 쉼터’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폐 기능을 점검해보는 ‘폐활량 체력 부스’를 운영해 흡연 예방에 대한 흥미와 경각심을 동시에 높였다. 또한 학교 교문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등굣길 금연 캠페인을 펼치며 평생 금연의 중요성을 전파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세계 금연의 날 주관을 맞아 도심 거리와 교육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금연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우기철 대비 주요사업장 안전관리 점검

김제시가 우기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해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대규모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기수 새만금경제육성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우기철 취약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투자유치와 소관 주요 사업장으로, 배수시설 정비 상태와 비탈면 관리, 토사 유출 방지 대책, 가설구조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배수체계 운영 상태를 비롯해 침사지 및 가배수로 정비 여부, 토사 유출 방지시설 설치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했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강 국장은 “앞으로도 주요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관리와 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장학재단 “가자 SKY” 수도권 명문대·첨단기업 견학

(재)고창군장학재단이 지역 중학생들과 함께 ‘2026 상반기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인재 육성사업(가자SKY)’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달 28-30일(2박3일) 고창지역 14개 중학교 3학년 학생 25명이 참여했다.

각 학교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수도권 주요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을 직접 방문하며 구체적인 진로와 진학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국민대학교 등 주요 대학 캠퍼스를 찾아 대학 생활과 학과 정보를 생생하게 접했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대모티스튜디오,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등을 방문해 첨단 산업과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재)고창군장학재단 관계자는 “지역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미래를 주도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송미령 장관, 순창 농어촌기본소득 성과 점검

순창군 '순창갯간' '금요장터' 방문 기본소득 연계 운영사례 확인 지역화폐 사용률 77.3% 성과 공유



<사진=순창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달 28일 순창군을 방문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성과와 이를 연계한 지역상생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방문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 출범기자단 현장간담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지난 3월 유등면에 새롭게 문을 연 순창갯간에서는 순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상황 보고가 진행됐다. 군은 기본소득 지급 현황과 지역 내 소비효과,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성화 성과 등을 공유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순창형 정책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등록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4월 기준 누적 지급액 144억 원 가운데 112억

원이 실제 지역 내에서 사용돼 77.3%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정책 추진 이후 지역사회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군은 공모 선정 이후 인구가 869명 증가했고,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기존 38개소에서 53개소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이 지역 소비와 생활서비스 확대로 이어지며 공동체 기반 회복과 지역 활력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이후 송 장관은 유등사회적협동조합 '순창갯간'과 풍산주민자치협동조합 '금요장터'를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기본소득 연계 생활경제 모델과 주민 참여 기반 공동체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

유등 '순창갯간'과 풍산 '금요장터'는 주민 주도 순창형 지역상생 모델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송 장관은 순창군 사례를 '의미 있는 농촌 정책 모델'로 평가했다.

이후 송 장관은 유등사회적협동조합 '순창갯간'과 풍산 '금요장터'를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기본소득 연계 생활경제 모델과 주민 참여 기반 공동체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 사전투표 후 참여 독려

"완주의 희망 다시쓰겠다" "유희태 사익 의혹 해명해야"



국영석 후보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는 지난 달 28일 오전 6시 봉동읍사무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반드시 완주의 땅과 눈물을 희망으로 다시 쓰겠다"라고 밝힌 뒤 "완주군민의 투표 참여가 완주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국 후보는 "독선과 불통으로 일관하는 유희태 후보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완주군민의 답답함은 더해만 갈 것이다"며 "만경강의 기적은 사라지고 완주의 미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국 후보는 "유희태 후

보 본인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 처제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 토지 6만여 평으로 국도 17호선이 통과하는 이설계획으로 세우고 사익을 취하려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며 "유희태 후보가 말하는 연수원 부지 등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가 필요함에도, 도로 확보 계획도 없이 연수원 부지를 운운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오색한 답변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다"고 비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수도권 도시민 공략 귀농귀촌 유치

서울서 예비 귀농인 상담 진행 실제 귀농 사례 중심 맞춤형 교육

순창군은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도시민 상담 및 교육'을 운영하며 수도권 지역 도시민 유치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지난 달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지빌딩(방배동) 내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됐으며 도시민 25명이 참석해 순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은 순창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순창군 귀농귀촌 정책 홍보와 정착 상담,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귀농귀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1일차에는 순창군 귀농귀촌 정책 및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등 순창군 지원정책 설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이어 귀농귀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관리 교육은 현실적인 정착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상담 시간을 별도로 운영해 교육생들의 개별 궁금증을 해소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다.

2일차에는 실제 귀농 사례를 중심으로 한 '나의 귀농 이야기' 강의를 진행해 교육생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실제 정착 경험과 현장 이야기를 통해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지역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됐다.

군 관계자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과 정착 정보 중심의 상담과 교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지역상생' 옐로우 벼룩시장 성황

혁신도시서 34개 업체 참여 장터

완주군이 지난 달 29일 전북혁신도시 옐로우팜 일원(W푸드테라피센터, 치유정원)에서 지역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내 우수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2026년 옐로우 벼룩시장'을 성황리에 열었다.

(사)완주신활력플러스사업단과 옐로우팜 혁신직영점(대표 김경순)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완주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거점 공간인 W푸드테라피센터와 치유 정원을 활성화하고, 액션그룹 간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완주군 관내 업체뿐만 아니라 김제시 등 타 시군의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을 포함해 총 34개 업체가 참여해 풍성함을 더했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농식품, 가공품, 공예품, 전통주, 간식, 의류 등 업체의 대표 상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였으며, 가공·발효 시제품의 홍보와 시식



<사진=완주군>

행사를 함께 진행해 방문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완주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인 '그라스팜'이 진행한 치유 농업원에 체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다. 이외에도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을 위해 구매 금액별로 다양한 가공제품과 상품을 증정하는 현장 행사를 마련해 장터의 활기를 더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도 W푸드테라피센터와 치유정원 등 거점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경제와 로컬 브랜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공공분야 드론 활용 앞장선다

공무원드론교육·행정투입추진

남원시가 드론 기술의 행정 활용이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공공분야의 드론 운용 능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행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드론 실무 교육에 나섰다.

시는 지난 달 28일(1기)을 시작으로 이달 11일(2기), 18일(3기) 총 3기에 걸쳐 남원첨단산업비즈니스센터 실내·외 교육장에서 공무원 32명을 대상으로 드론 실무 운용 기반 구축을 위한 '드론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도입의 첫걸음인 이번 교육은, 드론 활용도가 높은 농업·산림, 공간정보, 안전분야

등 14개 부서 및 업무 연계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과정은 공공분야 드론 활용 사례 및 기초 원리 교육에 이어 FPV 드론 및 산업용 드론 조종 실습을 통해 행정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실무에 필요한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남원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스마트 행정의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FPV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11월에는 현장에 투입해 공공분야 드론 실증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여름철 재난 방지 안전망 강화 '총력' 2(題)

순창군, 18개 기관 수상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순창군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군민 생명 보호를 위해 수상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확대 배치하는 등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협의체는 이달부터 9월까지 상시 가동되며, 안전재난과를 중심으로 군 내부 부서와 소방·경찰·교육지원청·한국농어촌공사 등 총 18개 기관 및 부서가 참여한다.

군이 관리하는 수상 안전관리 대상은 물놀이 지역과 저수지, 야영장, 유원시설, 강천산 군립공원, 수상레저시설 등을 포함해 총 218개소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군은 성수기 이전부터 현장 중심

완주군, 300억 투입 전주천 6.5km 정비 완료

완주군이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던 범람 우려를 완화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강우에 대비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해 예방 안전망을 한층 보강했다.

군은 상관면 용암리에서부터 신리 한일장신대까지 총 6.5km에 달하는 전주천 지방하천의 정비사업을 이달 최종 준공했다.

군은 이번 사업 준공으로 전주천 일대의 범람 및 침수 위험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종훈 군수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관내 재해 취약하천들을 지속적으로 관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작으로 5년간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치수 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물이 흐르는 단면적인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하천 폭 확장, 취약 제방의 강성 호안 보강, 노후 교량 3개소 제거, 보 및 낙차공 설치, 제방도로 정비 등을 총괄하게 추진했다.

군은 이번 사업 준공으로 전주천 일대의 범람 및 침수 위험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종훈 군수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관내 재해 취약하천들을 지속적으로 관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경제총조사 실시... 7월 22일까지

전체 사업체 대상 경제지표 파악 온라인·현장 병행 참여 편의 제공

남원시는 국가데이터처와 함께 오늘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 관내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구조와 분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지정 통계조사로,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사업체의 종사자 수, 매출액, 사업형태, 경영 특성 등 지역 경제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국가 및 지자체의 경제정책 수립과 산업 연구, 각종 행정자료 및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달 총 38명의 조사요원을 선발하였으며, 이 중 28명의 현장 조사원이 6월 11일부터 7월 22일 동안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조사도 병행한다. 온라인 조사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경제총조사는 지역 산업 구조와 경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사"라며,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총조사는 통계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로,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인재육성재단, 올해 장학금 2억 지원

정기이사회 개최 주요 안건 심의 애향장학생 260명 선발 예정

완주군인재육성재단이 지난 달 29일 완주군청 중회의실에서 이종훈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단 이사 및 감사 등 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미래 인재 육성과 재단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85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보고 사항 1건과 의결 사항 6건을 집중 논의했다. 보고 사항은 '완주군인재육성재단 외

부 회계 감사인 선정'이며, 의결 사항으로는 제2회 세입·세출 예산 변경(안), 정관 일부 개정(안), 애향장학생 선발 심사 승인(안), 기본 재산 편입 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안), 완주군인재육성재단 임원 선임 의결(안), 완주군인재육성재단 외부 회계 감사인 선정(안) 등이 상정돼 심의를 거쳤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역 학생들의 학업 수행과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애향장학생 선발 심사 승인(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재단은 올해

총 26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총 2억 3,4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단은 이번 장학사업을 통해 우수 인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과 진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기 종료 임원에 대한 선임 안건도 함께 조율했다. 임기 만료 대상은 이종훈 부이사장을 비롯해 임한필, 김영보, 이용대, 오석홍, 박훈진, 강태희, 안중기 이사 등 총 8명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 체육시설 3곳 투표소로... 6월 3일 전체 휴강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 오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 설치를 위해 일부 체육시설의 운영을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완주국민체육센터 등을 투표장소로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선거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완주국민체육센터 체육관과 이서문화체육센터 체육관은 투표소 설치 준비가 시작되는 2일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다만 6월 2일 수영장은 정상 운영하며, 선거 당일인 6월 3일에는 센터 전체가 문을 닫는다. 아울러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수영장도 시설 로비 내 투표소 설치에 따라 6월 2일부터 투표일인 3일까지 이틀간 운영을 중단한다.

아울러 공단이 운영 중인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수영장도 시설 로비 내 투표소 설치에 따라 이용자 안전 확보와 원활한 선거 운영 지원을 위해 6월 2일부터 투표일인 6월 3일까지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번 운영 조정은 투표소 설치와 시설 안전 점검, 이용자 동선 확보 등 원활한 선거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되며, 공단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캄보디아 보건의료연수단 남원시 공공의료체계 벤치마킹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최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라따나끼리주 보건의료 연수단이 선진 공공보건의료체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달 29일 남원시를 방문했다.

이번 사업은 캄보디아 라따나끼리주의 공공병원 일부를 증축하고 의료진 및 경영진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현지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KOICA 방동 사업이다. 이날 방문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국제협력추진단, 캄보디아 보건국 및 라따나끼리주 보건국 관계자, 라따나끼리주병원장, 꾀땀병원장 등 현지 보건의료 핵심 인사를 포함한 총 21명이 참석했다.

연수단은 남원시보건소 주요 시설을 견학했으며, 한용재 보건소장으로부터 남원시의 보건 현황과 관계기관 간 협력 연계사업에 대한 발표를 들었다.

특히 연수단은 예방접종 지원사업, 만성질환자 관리 등 보건소와 남원의료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집중적인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한용재 남원시보건소장은 "남원시가 축적해 온 공공보건 역량이 캄보디아의 지역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 고산농협, 2억5천 상당 영농자재교환권 조합원에 지급

완주 고산농협(조합장 손병철)은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으로 인한 영농자재비 상승에 대응해 지난 달 26일 본청에서 영농자재 이용 우수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갖고 조합원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영농자재교환권 전달식을 진행했다.

고산농협은 2023년부터 농업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전 조합원에게 영농자재교환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조합원 2,285명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영농자재교환권을 지원했다.

전달된 영농자재교환권은 조합원별 경제사업 이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해 농업경영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된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했다.

영농자재교환권은 사용 및 관리가 편리한 맞춤형 카드도 지급되며 고산농협 영농자재센터 및 지점에서 비료, 농약, 일반자재 등 각종 영농자재 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손병철 조합장은 "앞으로도 조합원의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장수군 장애인탁구선수단, 국제 대회서 잇단 메달 획득

장수군은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소속 장애인탁구 선수들이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린 '2026 슬로베니아 라스코 엘리트대회'와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2026 대만 타이베이 엘리트대회'에서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슬로베니아 라스코 엘리트대회에서는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소속 국가대표 황인춘 선수가 단식 동메달과 복식 동메달을 각각 획득하며 2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대만 타이베이 엘리트대회에서는 장수군장애인탁구협회 백영복 선수가 단식 은메달, 남자복식 동메달, 혼합복식 동메달을 획득해 총 3개의 메달을 추가했다.

슬로베니아 라스코 엘리트대회와 대만 타이베이 엘리트대회는 높은 랭킹포인트가 부여되는 국제대회로, 오는 10월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와 11월 개최 예정인 '2026 파타야 세계 선수권대회' 출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무대다.

장수군 장애인탁구선수단은 이번 국제 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아시아경기 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주니어보드, '슬기로운 한글&엑셀생활' 발간

임실군은 지난달, 저연차 및 신규 공직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필수 프로그램(한글, 엑셀) 활용성 향상 및 디지털 능력 습득을 위해 '슬기로운 한글&엑셀생활'을 제작·발간하여 배부했다.

이번에 발간한 '슬기로운 한글&엑셀생활'은 공식 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한글'과 '엑셀'의 주요 기능 및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슬기로운 한글&엑셀생활'은 1장: 한글 편 및 2장: 엑셀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글 단축키 모음 △한글 프로그램 주요 기능 △엑셀 단축키 모음 △엑셀 함수 활용 △엑셀 프로그램 주요 기능 등 업무 시 마주칠 수 있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수록되어 있어, 저연차 공무원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현장점검·안전관리 강화

진안군이 최근 전국적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선제적인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달 29일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 대행이 관내 주요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지 확인 및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근로자 안전의식을 높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지난해 착공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진안읍 보훈회관 △부귀면 온가족 행복거점센터 건립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관계자로부터 공정 현황과 안전관리 계획을 보고받은 뒤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 설치 상태 △안전모·안전벨트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 △집중호우 대비 수방 자체 확보 현황 △폭염 대응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벼·논콩 병해충 방제 신청

병해충 공동방제 본격 추진 오는 10일까지 신청 접수

임실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작물 병해충의 적기 방제와 고품질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벼·논콩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공동방제 신청 대상은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벼 또는 논콩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대대적으로 추진되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에는 총사업비 13억 7,800만원이 투입되며, 1·2차를 합산해 총 7,400ha 규모로 추진된다.

방제 방식별로는 드론 등을 활용한 효율성 높은 항공방제가 4,920ha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일반방제 2,400ha, 광역방제 80ha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논콩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도 총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해 총 600ha 규모로 추진된다.

공동방제에 사용될 약제 선정과 세부 방제 시기 등은 향후 '병해충 공동방제 협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특히, 군은 농약안전사용기준(PLS)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벼와 고추, 복숭아 등 임실군 주요 품목에 등시 등록된 약제와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약제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도열병과 잎집 무늬미름병, 벼멸구, 흑명나방 등 생육 후기 주요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 2회에 걸쳐 실시된다.

방제 방식은 드론과 광역방제를 활용한 '항공·광역방제'와 조생종 재배

지 또는 개인 방제를 선호하는 농가에 약제를 지원하는 '일반방제'로 구분된다.

특히, 광역방제는 오수면과 삼계면 등 일부 지역에서 마을 단위 집단 신청 방식으로 추진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논콩 병해충 공동방제 역시 노린재류와 나방류, 탄저병 등 주요 병해충을 종합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약제를 지원하며, 총 2회 방제로 진행된다.

다만,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한 만큼 신청 전 반드시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군은 이번 공동방제를 통해 이상기후로 다양해지는 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의 방제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글로벌 축산 전문인력 양성

장수한우지방공사·전북대·농진청 업무협약 체결

장수한우지방공사가 지난달 28일 전북대학교에서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촌진흥청과 축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지원 및 지역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촌진흥청의 국제개발협력사업과 지역 대학·공공기관의 교육 및 현장 역량을 연계해 축산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상생 협력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회 사업과 KOPIA 사업을 통해 전 세계 79개국과 국제개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농생명 분야 전문인재 양성과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축산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 과정을 공동 기획·운영하여 국제협력 국가들의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학술 및 기술정보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오는 8월에는 네팔과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등 농촌진흥청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 중인 아시아 6개국 연구자를 대상으로 인공수정사 및 종축개량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축산 현장 중심의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한우지방공사가 지난 28일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촌진흥청과 축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지원 및 지역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장수군>

조금현 사장 권한대행은 "한우 개량과 현장 중심 경영을 통해 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익적 가치 실현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협약은 지역 사회는 물론 국제적 농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적 활동을 확장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기대

무주군이 1일부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카드 또는 무주사랑상품권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 0.4%를 지원(업체당 최대 70만 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 후 정상 영업 중이어야 한다. 1인 이 다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1인당 2개 사업체까지만 인정된다. 단,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상 10억 미만의 소상공인은 전년도 무주사랑상품권 매출액의 결제수수료 0.4%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자를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온라인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시 전화 확인이 꼭 필요하다.

방문 접수는 무주읍을 비롯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하면 된다.

김영광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올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총 22억여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노란우산공제 지원, △전기요금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여름철 감염병 예방 총력 대응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비상방역체계 가동

임실군은 여름철 기온 상승과 야외활동 증가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해 발생하는 질환(식중독, 집단 배탈, 설사 등)을 말한다. 주요 질환으로는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제2·3급 감염병이 포함된다.

이번 비상방역체계는 질병관리청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연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추석 연휴에도 공백 없이 가동될 예정이다.

특히 비상방역 기간 동안 △2·3급 환자 2명 이상이 연관되거나 △동일한 음식물 섭취 후 2명 이상이 유사 증상(설사·구토 등)을 보이면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여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요 수칙으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등 2·3급 감염병이 포함된다.

여 마시기 △채소·과일 깨끗이 씻어 먹기 △설사 증상 시 음식 조리 금지 등이 있다.

임실군보건료원장은 "학교·요양시설 등 집단급식소는 하절기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며, 감염병은 예방이 최선인 만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거나 집단 발생이 의심될 경우 임실군보건료원 감염대응팀(063-640-3393)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 성료

음악회 '빛나는 따스함' 개최 지역 아동·청소년 43명 참여

장수군은 지난달 28일 장수초등학교 강당에서 2026년 꿈의 오케스트라 꿈의향연-찾아가는 음악회 '빛나는 따스함'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장수문화원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며, 장수군과 장수초등학교가 후원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음악 활동을 통해 쌓아온 성과를 지역사화와

공유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공연에는 강사와 객원 연주자 17명, 초·중등생 단원 43명 등 총 60여 명이 참여해 그동안 연습하며 갈고닦은 연주 실력을 무대 위에서 펼쳤다.

공연은 꿈의 오케스트라 합창을 비롯해 '캐리비안의 해적 OST', '붉은 노을', '소다팝', '나팔수의 휴일' 등 다양한 곡으로 구성됐다. 힘찬 리듬과 따뜻한 선율이 어우러진 무대는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전했으며,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의 호응 속에 풍성하게 진행됐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무주산골영화제 손님맞이 최선

무주군 전역 청소·집중 안전 점검

무주군이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 개최를 앞두고 오는 3일까지 손님맞이를 위한 대대적인 환경정비 및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대상은 등나무운동장을 중심으로 지남공원 등 예체문화관, 무주상상만디움, 최복미술관·김한태문학관 등 산골영화제가 열리는 야외공간과 주변 도로, 주요 관광지 전체를 포함한다.

도로와 난대천 둔치, 산책로 등지에 서는 생활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청소와 잡목 및 풀베기 제거 활동을 추진한다. 무주읍 시가지에 설치된 가로등

정수도 진행하며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한 위생·안전 상태도 점검한다.

무주군은 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건축물·전기·가스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한다.

합동 점검반은 영화제 기간 중 인과가 물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무대 및 관람 시설, 임시 설치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비롯해, 야외 행사장 내 누전 및 규정 전선 사용 여부, 가스 용기 관리 및 배관 누출 여부 등 화재와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엄정 심사

임실군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일부터 내달 말까지 두달간 '2026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집중 심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재산의 과다 증감 여부뿐만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의 정당성과 누락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심사 기간 동안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했는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나 불투명한 자금 흐름이 있었는지를 엄격히 검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조희 회신자료와 국토교통부 2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집중 심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과실이나 단순 누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및 경고 조치에 그치지만,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허위 신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당한 재산 증식 혐의가 적발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외국인 근로자 '찾아가는 지문등록' 실시

전주출입국사무소와 협력

진안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장 중심 적극행정에 나섰다.

군은 지난달 29일 진안군농업기술센터 3층 강당에서 지난 3월 입국한 라오스·베트남 국적 신규 외국인 계절근로자 101명과 고용 농가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문등록 서비스'와 '고용농가 준수사항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 후 외국인등록 절차를 위해 반드시 지문등록을 해야 하지만, 그동안 농가주가 근로자들을 인솔해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진안군은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력해 출장 등록 방식의 현장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라오스·베트남 신규 근로자들의 지문등록과 신원 확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으며, 군은 언어 도우미를 배치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안전한 등록 절차를 지원했다.

군은 지문등록이 진행되는 동안 고용 농가주를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며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진안=전길빈 기자



남원 사회적기업 (유)서남환경, 취약가구 방역소독 지원

사회적기업 (유)서남환경(대표 서덕교)이 지난달 27일, 남원시 도동동 관내 주거 환경이 열악한 11가구에 맞춤형 방역소독 서비스를 지원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번 방역소독 지원은 도동동행정복지센터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도동동행정복지센터는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통해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해충 발생 위험이 높은 저소득 가구를 발굴하고, (유)서남환경은 방역소독을 취약 가구에 재능기부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지원 혜택을 받은 안OO 어르신은 "지난해 모기, 바퀴벌레 등으로 인해 여름을 보내기가 참 힘들었는데, 소독해주시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며, "정말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해주셔서 고맙다"고 전했다.

도동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변함없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귀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유)서남환경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부안읍행정복지센터 직원들, 고추재배 농가 일손 도와

부안군 부안읍행정복지센터 직원 10여 명이 본격적인 모내기와 밭작물 수확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를 찾아 대대적인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

부안읍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29일 일찍부터 부안읍 내요리에 위치한 고추재배 농가 재배지를 방문해 고추 지주대 및 제초매트 설치 작업을 지원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김병태 부안읍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작거나 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손이 부족한 취약 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 밀착형 행정을 펼쳐겠다"라고 밝혔다.

/부안=온봉기 기자

농협 익산시지부, 마한초 모내기 체험행사 개최

농가에 대한 감사함 배워

NH농협 익산시지부(지부장 진현욱)는 도시농업기반구축(스쿨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한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스쿨팜 모내기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마한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NH농협 익산시지부 진현욱 지부장이 참석하여, 도심 속 아이들이 직접 흙을 만지고 모를 심으며 생명의 소중함과 농업의 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농업인들이 얼마나 많은 정성과 땀방울이 필요한지 직접 몸으로 느끼며,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과 농가에 대한 감사함을 배우는 건강한 식문화 교육의 장이 되었다.

스쿨팜 프로그램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교육청, 전북농협이 협력하여 도심 속 초등학교 내에 유휴 공간을 활용한 농업 체험장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직접 파종부터 수확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자체 협력 사업이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정서 함양과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촌에 대한 애착을 높여준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농협 군산시지부, 군산 부설초와 농업·농촌의 가치 알려

농협 군산시지부는 지난달 29일 군산 부설초등학교에서 '농심전심(農心天心) 스쿨팜 모내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농협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농심전심(農心天心) 운동의 일환(농업·농촌 가치 공감 - 농가지 캠페인)으로 도시화에 따라 농촌지역 생활공간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됐다.

농협 전북본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와 함께하는 스쿨팜 사업은 학교(스쿨)와 텃밭(팜)의 합성어로 도내 약 40여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학교 내 유휴 부지나 여유 공간을 활용해 텃밭을 조성하고 각종 채소 키우기, 모내기 및 전통 벼 수확 체험, 먹거리 체험 등 다양한 농업 체험 활동이 펼쳐진다.

/군산=임근석 기자

정읍시기관장협의회, 농촌일손돕기 실시

농촌 일손 부족 지원 사과 적화 작업 등 도와

정읍시기관장협의회(정우회, 회장 박일)는 정읍시 방농협 및 유관기관 임직원들과 지난달 28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 부족 지원을 위해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읍시기관장협의회(정우회, 회장 박일) 등 27개 기관 단체인, NH농협정읍시지부(지부장 김순기), 농신보정읍권역보증센터

(센터장 홍영석), 전북광역연합사업단, 정읍원에농협(조합장 이대건), (사)정읍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임찬규) 등 35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활동에는 농협 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참여자들은 사과 적화 작업을 중심으로 과수원 환경 정비 등 다양한 작업을 함께하며 농업인의 어려움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정인 기자



회양농업, 행복농촌을 위한 농촌일손돕기. NH농협 익산시지부, 농심전심



임실읍협,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활동

임실군 임실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사회적 관계 단절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독사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중장년 1인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 안내문과 복지정보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특히 전기·수도요금 장기 체납, 우편물 방치 등 위기 징후를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중점 안내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라며 "복지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고창 공음면협, 보행보조기·지팡이 지원

고창군 공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애숙, 민간위원장 김대진)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보행보조기·지팡이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환이나 장애 등으로 홀로 걷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보행보조기 15세대, 지팡이 30세대가 지원됐다.

지원 대상자는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발굴 및 선정했으며, 위원들이 가정을 방문해 보행보조기 사용법을 안내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및 안부를 확인했다.

김대진 민간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행보조기와 지팡이 지원이 어르신들의 든든한 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익산 원광새마을금고, 청소년 위해 2,000만원 기탁

익산에서 문화와 나눔이 어우러진 뜻깊은 행사가 열린다.

익산시는 원광새마을금고가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2,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기탁은 원광새마을금고가 오는 30일 개최하는 신청사 개청 기념 열린음악회에서 이뤄지며, 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업과 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원광새마을금고는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서민금융 지원은 물론 장학사업과 복지 지원, 문화행사 개최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원광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익산시 신청사 개청의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번 열린음악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황사와 미세먼지 차이점

황사는 사막 등 건조지역의 흩먼지나 모래가 강한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자연현상입니다

미세먼지는 황사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 및 자동차 매연 등에서 인위적으로 배출, 합성되는 물질

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一事一言〉



국회 문턱 넘은 '국립의원법', 이제 실천과 집행의 시간이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정치가 국민의 생명과 지역의 생존보다 앞설 수는 없다. 전북의 오랜 숙원이자 국민의 목숨줄이 걸린 '국립의원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률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방향에서 출발해 별도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구축으로 확대되기까지, 전북도민들이 흘린 눈물과 기다림의 세월을 생각하면 이번 국회의 결단은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기쁨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

분지는 전북의 의료 자존심을 세우고 지리산권을 비롯한 도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이번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이제는 정쟁의 사지에서 간신히 구출해 낸 이 법안이 온전히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 현장은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장기화로 고사 직전에 몰려 있다. 특히 지방의 필수 의료 체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타격을 입고 붕괴하는 중이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구급차 안에서 안타깝게 숨을 거두는 비극이 전국적인 논란을 넘어 우리 지역의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도민들을 짓누르고 있다.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으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명시된 '15

년간 공공의료 분야 의무복무' 조항은 의사 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키고 필수·공공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 가운데 하나다.

물론 대한의사회 등 의료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부실 교육 우려나 강제 복무의 위헌성, 의사 수급 왜곡 등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의 질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나 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지적은 향후 시행령 제정과 대학 설립 과정에서 긴밀한 토론을 통해 다듬어가면 될 일이다.

지역의사제 도입, 필수의료 수가 개선, 공공병원 확충 등 의료계가 제시하는 다른 대안들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당장 벼랑 끝에 선 지방 의료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국립의원법 설립이라는 제도적 브레이크는 결코 멈춰 세울 수 없다.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명분과 도민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있는 논리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정부와 차기 전북의 리더십으로 넘어왔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과 지역 정치권은 이 국면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철마다 표를 구걸하며 화려한 미래 먹거리를 쏟아내지만, 도민의 생명을 지킬 병원과 의사가 없는 땅에 어떤 발전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여야 정치권은 국회를 통과한 국립의원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행정적 지연이라는 암초

에 부딪히지 않도록 최우선 민생법안으로서의 가치를 정부에 설득해야 한다.

차기 전북의 수장 역시 말로만 지역 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남원 국립의원법의 조속한 착공과 인프라 구축 등 후속 절차의 실행을 위해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마땅하다.

전북은 더는 중앙 정치의 변두리에 머무는 소모품이 아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지역 정치인들과 새로운 지방정부는 중앙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는 비겁한 정치를 끝내고, 도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태만이나 정쟁의 여파로 실제 의원원 문을 여는 일이 지연된다면, 전북 유권자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정치 세력들에게 주권자의 준엄한 제재를 들 것이다.

주권자인 도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6월 3일, 현명한 전북도민들은 말이 아닌 실질을, 변명이 아닌 책임지는 실행력을 가진 진정한 리더십을 선택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전북의 단호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국회 문턱을 넘은 국립의원법이 전북 의료 안전망의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정쟁을 멈추고 법안의 온전한 실행과 집행을 위해 다 함께 지혜를 모을 때다.

사설

시민사회의 경고, 정치권은 귀를 막지 말라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향할수록 정쟁은 사라지고 진영 대결만 남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도민들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의료와 농업, 인구 감소와 같은 절박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듣고 싶어 하지만 정작 정치권은 상대를 공격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가 특정 정치인의 선거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선거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 것은 단순한 인물 논란이 아니다. 이 전면에는 갈수록 과열되는 선거 문화와 정책 실종, 그리고 정치의 품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비판이 상대 진영이 아닌 시민사회 내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치권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경고다.

선거는 전쟁이 아니다. 국민과 도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사람을 선택하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그러나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혐오와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가 반복된다면 남는 것은 상처뿐이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역사회는

함께 살아가야 하고, 당선자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시민까지 품어야 한다.

특히 전북은 어느 지역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의료 공백, 청년 유출, 농업 위기, 지역경제 침체는 정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그럼에도 정쟁 경쟁보다 진영 논리가 앞선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책임이 정치의 본질이다. 시민사회의 경고는 특정 인물을 향한 비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에 나선 모든 정치 세력이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준엄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도민들은 더 이상 말싸움에 박수치지 않는다. 누가 더 크게 외치느냐보다 누가 더 책임 있게 행동하느냐를 지켜보고 있다. 정치권은 시민사회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승패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품격과 책임으로 완성된다.

독자투고

단 한 번의 방심과 위반이 생명을 앗아간다



최근 관내 교통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매일 도로 위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마주한다. 교통 사망사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분명하다. 사고의 상당수는 피할 수 있었고, 그 출발점은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가 있었다. 유가족이 던지는 질문, "왜 막을 수 없었습니까?"에 대한 답 역시 결국 '기본의 부재'로 귀결된다.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비다. 그럼에도 "잠깐이니깐", "가까운 거리니깐"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이를 외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사고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단 한 번의 충격에도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 여부는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여기에 더해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와 규정 속도 준수는 사고 예방의 핵심이다. 운전 중 한 순간의 방심, 휴대전화 사용이나 주의력 분산은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운전은 위급 상황에서의 대응 시간을 줄이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치명적으로 키운다. 규정속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경찰은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과속, 주의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은 단속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도로 위 모든 구성원이 기본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교통사망사고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외면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비극이다. 안전띠를 매고, 안전모를 착용하며,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지키는 것, 이 단순한 실천이 생명을 지킨다.

단 한 번의 미착용, 단 한 번의 방심, 단 한 번의 과속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든다. 도로 위에서는 단 한 순간의 예외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무주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경장 송경민

오늘의시

보리밭 / 안도현

이 땅에 아직
보리밭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내릴 수 없는
깃발이 있다는 뜻이다
이 땅에 아직
보리밭이 있다는 것은
팡투기꾼 독점재벌에게는
도저히
빼앗길 수 없는
한 뼉의 분노가

있다는 뜻이다
이 땅에 아직
보리밭이 있다는 것은
밭아도 밟아도
되살아나는 희망
우리가 청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땅에 아직
보리밭이 있다는 것은
적에 대한 증오가

이렇듯 푸르고
동지에 대한 사랑이
이만큼 싱싱하다는 뜻이다
이 땅에 아직
보리밭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아직
보리피리를 찬란하게
불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시인 약력 : 1961년 경북 예천 출생. 대구 대건고를 졸업하고 원광대와 단국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년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낙동강'이 당선되면서 데뷔했고 1985년 이리중학교 재직시절 전교조에 참여했다가 해임됐다. 1996년 시와 시학 젊은 시인상, 1998년 소설 시 문학상, 2000년 원광문학상, 2002년 노작문학상을 수상했다. 우석대문학과 교수를 하면서 작가 활동을 병행했다. 2019년 단국대 천안캠퍼스로 자리를 옮겼다. 2020년에는 전주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등록번호전북가-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8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BT 전북타임스와 함께 하세요!



광고문의 환영합니다

전화 063-282-9601

구독신청:282-9603 기사제보 :282-9600 광고문의: 282-9601
E-mail - jbn8800@hanmail.net

전북의 오늘을 기록합니다

전북타임스
정확한 뉴스, 바울 소식

남원 춘향제

‘대한민국 대표 축제’ 위상 증명

대한민국 최고(最古)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대표 공연에 술축제 제96회 남원 춘향제에 151만명이 다녀갔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남원 춘향제’가 또 한 번 역대급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며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글로벌 축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남원시와 춘향제전위원회는 제96회 춘향제 방문객 공식 집계 결과 올해 총 1,508,565명(LG 통신 데이터 기반, 20분 이상 체류 기준)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교통 및 유입 인프라 지표’의 대전환이다. 축제 기간 남원 인근 고속도로 IC를 통과한 차량은 2024년 18만 5,003대, 2025년 20만 5,213대에서 2026년 22만 3,060대로 3년 연속 증가(전년 대비 8.7% 증가)하며 자가용 유입이 늘어난 한편, 친환경 대중교통 연계망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이같은 제96회 남원 춘향제의 성공요인에 대해 남원시는 △해마다 강화되는 춘향제 경제성, 남원시민 주도 축제기획 △남원 춘향제 글로벌춘향선발대회 등 핵심프로그램 더 진화, 춘향제에서 배출한 ‘춘향 앰버서더’, 춘향제 자산 축제의 중심에 서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영리한 ‘브릿지 프로그램’의 대성공△투명한 먹거리와 ‘동행 세일 페스타’로 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 △올해 처음 도입한 다화용품 ‘일회용품 없는 축제’ 대성공 등을 제시했다.

제96회 남원 춘향제의 성공포인트에 대해 돌아본다.

〈편집자주〉



‘제96회 남원 춘향제, 방문객 151만 명 돌파 교통·유입 인프라 지표 ‘대전환’ 이뤄내

▲대한민국 최장수 축제 춘향제, 매년 ‘주제’ 설정, 정체성 강화

△남원시민 축제메이커로서 프로그램 기획, 참여 제96회 남원 춘향제의 첫 번째 성공 요인은 오는 2030년 맞이할 ‘100회 춘향제’를 향한 단계적 원년의 해로서, 전략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실한 시정 패러다임을 투영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남원 춘향제는 민선 8기 들어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분기점을 맞아 다양한 국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글로벌 축제를 표방하며 매년 주제를 설정, 축제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93회 ‘빛’, 94회 ‘컬러’, 95회 ‘소리’에 이어 올해는 ‘맛’을 주제로 기품·결기·사랑·전통의 4가지 테마, 160여 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등 특히 올해는 100주년을 향한 단계적 원년의 해로써 ‘맛’을 담은 확실한 정체성, 시민이 주도한 글로벌 대동길놀이 추진 등 춘향제 특유의 전통 가치에 현대적인 로컬 콘텐츠 기획력이 정점을 이뤘다.

실제로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거리 퍼레이드는 올해 예술성과 규모를 한층 강화하고 처음 도입된 ‘전문 퍼레이드 경연대회’에는 국내외 정상급 퍼포먼스 팀들이 참여해 화려하고 역동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여기에 6,000여 명의 남원 시민이 축제 메이커로서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23개 읍·면·동 행렬이 더해지면서, 단순한 ‘보는 축제’에서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함께 만드는 대동 축제’로의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원 춘향제 글로벌춘향선발대회 등 핵심프로그램 더 진화, 춘향제에서 배출한 ‘춘향 앰버서더’, 춘향제 자산으로 축제의 중심에 서다

갈수록 남원 춘향제 핵심 프로그램이 더 진화하고 있는 점 이외에도 특히 올해는 춘향 앰버서더들이 축제의 중심으로 활동한 점 등이 춘향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국적 참가자들이 대거 참여한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를 통해 외국인 춘향이 연속 발탁되면서 축제의 국제적 품격을 높인 바, 올해 춘향선발대회에서는 춘향 진신미,정,숙,현,글로벌 앰버서더 등 총 10명의 춘향이 선정됐다.

특히, 남원시가 역대 춘향 수상자들을 K-문화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춘향 앰버서더’ 제도는 올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 춘향의 가치를 짚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전달하는 K-문화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특목히 해냈다.

▲올 춘향제, 전통과 현대 잇는 ‘브릿지 프로그램’ 기획 대성공

이밖에 이번 춘향제는 전통의 가치 위에 현대적 트렌드를 유연하게 엮어낸 ‘브릿지(Bridge·연결) 프로그램’의 영리한 기획도 단연 돋보였다.

실제로 남원시는 춘향제 브릿지 프로그램으로 5월 1일,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예정인 광한루에서 2026 보이는 이동스튜디오 ‘K-Culture 하이엔드 토크콘서트 - HELLO, 남원 유니버스 춘향제×광한루’편을 운영, 보물 지정 이후 60년 만에 국보로 승격된 광한루의 위상과 춘향제의 전통을 발판 삼아, 남원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K-전통문화의 심장부로 도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함윤호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콘서트에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홍보대사 배우 이원종이 메인 토키로 참여해 춘향제의 미래 비전과 광한루 국보 승격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유했다.

여기에 ‘춘향다움’의 현대적 재해석을 위해 초대된 나영미, 유윤정, 김도연 등 역대 춘향(춘향 앰버서더)3인, 전주KBS ‘신들의 정원’ 흥정의 PD 등이 출연해 문화자산의 브랜드 전략을 입체적으로 다뤘으며, 젊은 전통예술 단체 ‘더는 공작소’의 현대적 국악 변주 공연이 더해져 현장 관람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했다.

▲선과 함께한 사랑나눔런과 선재스님의 힐링푸드까지, 문화 스펙트럼 비약적 확장

또 이번 춘향제에서는 단순한 관람형 행사를 넘어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축제의 즐거움을 사회적 가치로 연결하며, 낮과 밤을 잇는 입체적인 기획으로 축제의 외연을 한 단계 확장시킨 부분도 돋보였다.

일례로, 요천변 일대에 조성된 ‘페밀리존’은 현대적인 압도적 규모의 ‘메가 에어바운서’로 어린이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동시에, 남원의 전통을 살린 ‘미꾸리 잠기 체험’을 배치해 신규(新舊)의 조화를 이뤄냈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알파 세대에게는 낯설고 신선한 생태 체험을, 어른들에게는 옛 향수를 자극하며 자연스럽게 세대 간 소통을 이끄는 교량 역할을 특목히 해냈다.

가수 ‘선’과 함께한 ‘사랑나눔런’도 축제의 열기를 나눔의 온기로 연결한 핵심 브릿지 프로그램이었다. 순위를 다투는 경쟁 대신 ‘함께 걷고 땀’은 동참에 의미를 둔 이 행사에는 전국에서 96명이 모여 요천변을 달렸다.

참가비 전액이 소외계층에 기부되면서, 축제의 즐

거움이 사회적 기부와 상생이라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가치 연결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사찰음식 명장인 선재스님의 특별강연과 전시도 호평일색이었다.

선재스님은 과거 세계적 무대인 APEC에서 인정받았던 ‘사찰음식과 남원 목기의 컬래버레이션’을 올해 축제 현장에 그대로 재현했다. 스님은 축제에서 남원 목기에 정갈한 사찰음식을 담아내며 전통 미학의 정수를 선보였으며, 이를 통해 남원 전통 공예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남원 목기의 무한한 확장성까지 제시했다.

또한 이번 춘향제에서는 스타 셰프 최현석이 참여한 ‘미식 토크쇼’도 개최, 미꾸리튀김, 백향과 요구르트 등 남원 특산물의 우수성을 극찬하며 로컬의 맛을 세계적 브랜드로 각인시킨 바 있다.

▲올해도 투명한 먹거리와 ‘동행 세일 페스타’로 지역 경제활성화 견인

이밖에 체계적으로 정비된 먹거리 콘텐츠 역시 올해 궁정적으로 평가됐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로 백종원 더네펀 코리아 대표와의 협업으로 안착한 먹거리 존은 투명한 정찰제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광객들의 높은 신뢰를 얻으며 지역 경제 선순환의 핵심 동력임을 다시 한번 입증시켰으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동행 세일 페스타’에는 지난해(128개 점포) 대비 대폭 증가한 220개 또한 점포가 참여해 축제의 온기를 시내 전역으로 확산시켰다.

▲‘친환경 스마트’ 시정 패러다임 증명… 쓰레기 줄고 대중교통 폭증

한편 올해 남원 춘향제는 다화용품 전면 도입을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대폭 줄이며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축제기간 동안 음식 판매부스와 먹거리 공간 등에 총 45만 개의 다화용기를 공급한 결과, 약 35톤의 쓰레기 감축 효과를 거둔 것 뿐 만 아니라 전년 대비 쓰레기 배출량이 11.6% 대폭 감소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도 눈부셨다. 시가 마련한 무료 셔틀버스 이용객은 전년 대비 무려 73.9% 폭증했으며, 남원역 철도 이용객 역시 39.6% 급증했다. 이는 고질적인 축제장 주변 교통 체증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 없는 친환경 축제’로의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장장 7일간 축제의 외연과 내연을 다채롭게 확장시키며 호평 속에 폐막한 제96회 남원 춘향제는 향후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브랜드의 이정표를 세웠다.

/남원=김종원 기자

